

주사랑교회 소식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 주일 낮 10시 45분부터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2. 맥추감사주일

오늘 주일(7.5)은 맥추감사주일로 드립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며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드리는 시간을 준비합니다.

3. 아하브 코업 홈스쿨 정기모임

일시 : 2026년 7월 7일(화) 오전 10:20 ~ 오후 3:30
장소 : 주사랑교회 본당 및 교육관

4. 성도 동정

임명순 사모가 7월 8일(수) ~ 10일(금)까지 수련회 일정을 갖습니다.

5. 교회교육주일 (교사 특송)

다음 주일(7.12) 오전 11시 예배는 교회교육주일로 지킵니다.
특송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교사 일동으로 드립니다.

6. 구역예배

일시 : 2026년 7월 4일(토) 오전 10:30 (교회출발 오전 10:00)
장소 : 김주형 성도 (애플트리디자인)
장소 : 한희락 청년

7. 2026년 7월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음력 5.17 ~ 6.18)

7.14(화)-박창균 성도 7.19(일)-박제연 집사 7.19(일)-문효은 집사
7.21(화)-노강민 형제 7.26(일)-이판순 성도(-6.13)

< 교육과 수련의 달 >

행사 계획

날짜	행 사 내 용
07/01	찾날빛이 일사예배 (성찬예식)
07/02	수원급찰 자방화장 순회 예배
07/05	맥추감사주일
07/07	아하브코업 홈스쿨 정기모임
08-10	임명순 사모 수련회 (2박 3일)
07/12	교회교육주일(주일학교 어린이)
07/14	아하브코업 홈스쿨 정기모임
07/19	청소년한신예배(중고등부)
07/26	교사한신주일교회학교교사)
08/01	찾날빛이 일사예배 (성찬예식)
08/02	교회학교수련회 중보기도회
03-05	유초등부 하계 수련회(드림캠프)
	중고등부 하계 수련회(드림캠프)
08/09	8.15 해방 기념주일

주일 사랑 운영

요일	운 행 안 내
주일	교회출발(9:45) ▶ 정자동(10:00) ▶ 화서동(10:10) ▶ 세류동(10:20) ▶ 교회(10:30)
귀가	교회출발(13:30) ▶ 정자동(13:40) ▶ 화서동(13:50) ▶ 동탄(14:20) ▶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15:00)
평일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예배안내

구	분	시	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2부	낮	1:00
주일어린이예배		낮	1:00
토요학령부예배		오후	4:00
주일청년부예배		낮	1:3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7:30
금요성령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월~토)		새벽	5:30
화요중보기도회		낮	2:00
목요구역예배		낮	2:00
Who made the world?	(상당 후 진행)		
Thinkwise(마인드맵)	(상당 후 진행)		
쉐 마 학 당	(상당 후 진행)		

찾아오시는 길 / 매교역 2번 출구방향 50m

주일대표기도



07/05	이광근 안집사
07/12	임명자 집사
07/19	임명숙 집사
07/26	김혜숙 권사
08/02	정현숙 권사
08/09	박제연 집사
08/16	이광근 안집사
08/23	임명자 집사
08/30	임명숙 집사



주사랑 9권 27호 | 2026년 7월 5일
창립 2017.11.25 | 성령강림 후 여섯 번째 주일(맥추감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주사랑교회
Jusarang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맥/추/감/사/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출 23:16)

주사랑교회 사명선언

- ①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 ②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③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 ④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 ⑤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 ⑥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 ⑦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 ⑧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일 오 전 예 배

오전 11시 00분 (맥추 감사 주일) 인도: 한승훈 담임목사

※ 목 도 마 6:31~33 인 도 자

※ 송영찬송 찬 31장 다 같 이
(찬양하라 복 되신 구세주 예수)

※ 사도신경 다 같 이

※ 주기도문 찬 635장 다 같 이

성시교독 No.105 감사절(1) 인도자/회중

찬 송 가 찬 393장 다 같 이
(오 신실하신 주)

대표기도 이광근 안집사
(남전도회장/재정부장)

※ 성경 봉독 신명기 16:9~12 (구 288) 이광근 안집사

광 고 인 도 자

말씀인도 첫 열매(그리스도, 성령, 교회) 담임 목사

봉헌찬송 감사찬송 다 같 이
(오병이어헌신 : 이재희 어린이)

※ 축 도 담임 목사
(※ 표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양기로운 예물 (안금함에 직접 드립니다 / 입금: 2026.07.04. 오전 6:00 기한)

십 일 조 : 감혜숙 장사라 정현숙 한승훈임명순
주정현금 : 감혜숙 박제현 이광근 임명숙 임명순 정현숙 한승훈 한희락
감사헌금 : 이광근 박제현 이재우(생일) 전복순 정지윤 정봉훈이성희 한승훈임명순
소망세광교회(사랑3순)

맥추감사 : 오현수 / 김옥화 김향태

월삭감사 : 감혜숙 이광근 박제현 한성결 한은총 한승훈임명순 한희락

교회학교 : 이재우 이재희 이재아 한은총 한성결

구역헌금 : 감혜숙 박제현 임명순

건축헌금 : 감혜숙

선교헌금 : 감혜숙 오동영 임명숙

후원헌금 : 신정인 오복상 방애경(2) 소망세광교회

성 미 : 김정미(쌀 10kg) 농협(주사랑교회) 351-1002-2982-63

주 일 오 후 예 배

오후 1:30 소 그 립

대표기도 말 은 이

성경봉독 요한복음 13:33~14:6 (신 169)

말씀제목 재지들의 발을 씻긴 예수님

말씀인도 담임 목사

수 요 저 녁 예 배

오후 7:30 (조직신학)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이사야 53:5 (구 1034)

말씀제목 조직신학 : 신유(안전함)①

목 요 구 역 예 배

오전 10:30 말 은 이

성경봉독 왕하 24:8-25:7 (구 605)

대표기도 말 은 이

말씀제목 눈이 뿔하고 약수의 땅에서 뿔하고

금 요 심 야 기 도

오후 7:30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로마서 7:15-25 (신 248)

말씀제목 믿음으로 사는 자의 고민

새벽 기도회(월~금)

새벽 5:30 사무엘상 묵상

5월일 요 13:33-14:6 갈과 잔과와 생명의 주

6월일 삼상 17:11~16 다윗은 맥과

7월화 삼상 17:17-30 안팎으로 압신여김

8월사 삼상 17:31~40 준비된 물매들

9월목 삼상 17:41~54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라

10월금 삼상 17:55-58 사랑과 사기를 한 몸

(단, 주일은 개인별 자율 묵상)

국내선교(오주교총후스쿨)



해외선교(모로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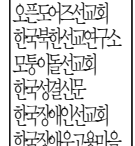
북한선교(북한선교위원회)



탈북민선교(평화나루교회)



기타 기관 선교



- ⑥ 베드로 사도는 혼란스럽고 혼탁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모습이 어떤 것이라고 역설하나요? (벧전 1:13-16)
-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주실 ()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 기록되었으되 내가 ()하니 너희도 ()할지어다 하셨느니라
- ⑦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벧전 1:18-19)
- 너희가 알게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로 된 것이니라
- ⑧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자고 권면하나요? (벧전 2:1-3)
- 그러므로 모든 ()과 모든 ()과 ()과 ()와 모든 ()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 ⑨ 베드로 사도는 믿는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나요?(벧전 2:9-10)
-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이요 왕 같은 ()들이요 거룩한 ()요 그의 소유가 된 ()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 ⑩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가 얻게 된 복이 무엇이라고 강조하나요?(벧전 2:22~25)
-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에 대하여 죽고 ()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와 ()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작성하신 답안은 주보 앞면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한글함에 넣어주시면, 봉헌시간에 축복기도를 해드립니다)

- ① 야고보서 기자는 주님의 강림이 가까워진 때에 마음의 부해지고 높아진 자가 주님의 심판으로 통곡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증언하나요? (약 5:5~6)
 너희가 땅에서 ()하고 ()하여 살륙의 날에 너희 ()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 ② 야고보서 기자는 환란의 날에 성도들이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나요? (약 5:8~9)
 너희도 같이 참고 마음을 ()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 ③ 야고보서 기자는 주님의 강림의 때까지 성도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위로하고 인내하고 도우며 살아야 한다고 했나요? (약 5:13~16)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할지니라 ()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 ④ 베드로 사도는 로마 정부에게 극심한 핍박을 당하는 각처의 성도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내야 한다고 격려하고 있나요? (벧전 1:3~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에 간직하신 것이라
- 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이들의 최후의 상급이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나요? (벧전 1:8~9)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을 받음이라

북한과 통일선교를 위한 기도

1. 말씀을 붙잡는 기도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사 2:4, 미 4:3)

주님의 말씀과 성령에 감동된 통일세대를 일으켜주소서.

① 휴전 73주년을 맞이하는 한반도에 회복과 치유와 평화를 주소서. 체제경쟁과 이념대립, 군사적 긴장과 적대적 역사를 멈추게 하시고, 평화와 자유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념과 이권과 사상의 대립을 복음으로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외치게 하소서(마 6:33).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주소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복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소서(롬 12:2).

② 복음통일선교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주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어린아이들이 일어나게 하소서(마 21:15).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불의한 세대 앞에 담대히 서는 거룩한 청소년들이 일어나게 하소서(삼상 17:45).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성결한 청년 세대가 일어나게 하소서(요일 2:14, 시 119:9). 믿음으로 가정과 사회의 본이 되는 기성세대를 세워 주소서(창 26:24).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정책 입안자, 학자와 기업인, 문화예술인과 언론인 등 사회의 각 분야의 지도층을 세워주소서. 개혁과 개방의 목소리를 높이며, 생명을 살리며, 세계무대에 평화적 복음의 문을 열어가 수 있는 파월벨트(파월엘리트)를 세워주소서(대하 36:22~23). 마침내 남과 북이 여호와와 말씀과 공의를 의지하여 칼을 보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사람의 힘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피 흘림 없는 통일'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민족이 여호와와 빛 가운데 행하며(사 2:4~5), 열방 가운데 복음과 화해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소서.

2. 북한이 맞이하는 7월의 영적 회복을 위한 기도

① 남북이 '진리와 의' 위에 서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1953년 7월 27일 한국 전쟁 휴전협정 체결 이후 73주년을 맞이합니다. 북한은 이날을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로 기념하며 한국전쟁에 대한 왜곡된 역사인식과 적대적 사상을 주민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평화의 영이신 성령님(롬 14:17), 한반도의 역사가 거짓과 허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리 앞에 바로 서도록 도와주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남북의 영혼을 '내 백성'이라 부르실 참된 주권자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남과 북이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 맞추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시 85:10~11). 한국교회가 복음통일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진리와 사랑으로 화해와 회복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 받도록 인도하소서.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구역예배가 어려우신 성도님들은 **가정예배**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순	서	예배진행	인도자	BC	오늘 본문의 연표	Bible
사도신경		다	같이	640	남유다 요시아의 등극	왕하 22:1~20
찬송가	 찬 369장	다	같이	622	요시아의 개혁 운동	왕하 23:1~20
대표기도		말	은이	609	유월절 행사, 브짓도에서 전사	왕하 23:21~30
성경봉독	 왕하 24:8~25:7	교	독		여호야김의 등극과 통치	왕하 23:31~35
말씀인도	 눈이 밝히고 약속의 땅에서 밝히고	말	은이		여호야김의 등극과 통치	왕하 23:36~24:7
합심기도		다	같이	598	여호야김의 등극과 통치	왕하 24:8~17
헌금기도	 찬 379장	말	은이	597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통치	왕하 24:18~21
주기도문		다	같이	586	남유다 왕국의 멸망	왕하 25:1~7

■ 들어가는 말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두 왕들도 유다의 심판이 예고된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여호야킨은 느부갓네살의 침략에 곧 항복하여 왕이 된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베벨론 왕에 의해 왕이 된 시드기야는 나중에 바벨론을 배반함으로써 자신과 백성과 나라를 사지로 내몰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포위되고, 시드기야 제11년에 함락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납니다(24:8~17).

여호와김의 아들인 여고야킨(=고니야, 여고냐, 여고니야; BC 598~597)은 유다의 18번째 왕이 되었지만, 그 역시 여호와와 눈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18세에 왕이 되어 3개월 10일을 다스린데 불과했고(대하 36:9), 부친의 모든 악행을 따른 왕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김과 여호와김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후손을 줄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렘 23:30, 렘 36:30). 이는 자식이 없을 것이라는 예언이 아니고 그들의 직계 자손으로 더 이상 왕조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김 당시에 주신 예언은 여호와김 제5년(BC 604, 렘 36:9)이라 이미 여호와김이 있었고, 여호와김은 일곱 명의 아들을 둔 상태였습니다(대상 3:17~18). 하나님의 예고는 실제 여호와김의 3개월의 짧은 왕정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이후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고 유다가 멸망함으로써 더는 정치적 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여호와김의 손자 스룹바벨이 유다로 돌아오지만 그는 바벨론의 총독이었습니다(대상 3:19).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함으로써(마 1:12~13) 다윗에게 약속한 후손을 주셨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여호와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이는 종주국을 배신한 나라에 대한 보복, 여타 속국의 반란 견제, 이집트의 영향력 차단을 목적으로 한 조치였지만, 근본적으로는 브릿세를 비롯한 왕들과 백성들의 죄로 인해 남유다 왕국을 멸절하려는 하나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3~4). 느부갓네살 왕은 1년 후 군사를 보내 예루살렘을 포위했고(10, BC 598년 12월), 그리고 여호와김의 등극 이후에 예루살렘에 당도하여 그가 항복하도록 압박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김이 느부갓네살의 승인 없이 왕으로 추대되었고 친이집트 정책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원조를 기대할 수 없었고, 당시 겨울(우기)이라 식량의 부족 등 여건이 좋지 않아서 곧 항복하게 됩니다(BC 597년 3월 15일). 여호와김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투옥됩니다(렘 22:24~30). 이때 모친, 아내들, 신복들, 지도자들, 내시들, 용사 7천 명, 장인과 대장장이 1천 명, 에스겔 등도 잡혀가게 됩니다(12~16, 겔 1:1~22). 바벨론 군대는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탈취했고,

솔로몬이 만든 금 그릇을 잘라내 가져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20:17~18). 느부갓네살은 요시아의 아들이자 여호와김의 숙부 맛다니아를 왕위에 앉힙니다. 느고 2세가 엘리야김 이름을 여호와김으로 바꿨듯이(23:34), 느부갓네살도 맛다니아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고 바벨론에게 충성하는 조약을 맺게 했습니다(겔 17:16). 예루살렘 백성 가운데 비천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남은 자 없이 모두 포로가 되었습니다. 참담하지만 수용해야 합니다. 그들이 자초했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당한 후에야 희망이 보입니다. 심판을 면제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심판을 통해 정금 같이 단련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둘째, 끝까지 자신만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집니다(24:18~21).

남유다 왕국의 19번째 왕이자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맛다니아)도 여호와와 눈에 악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21세에 즉위하여 11년간 다스립니다(BC 597~586). 그는 여호와김의 모든 악행을 따랐고, 여호와와 말씀 앞에서 겸손치 않았습니다(대하 36:12). 그는 예레미야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과 조언을 은밀히 구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매번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목숨을 구하라고 종용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왕국은 멸망했어도, 유대 민족을 정금처럼 새롭게 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렘 27:12~22, 렘 37:17, 렘 38:14~18). 이는 바벨론을 신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은 바벨론을 이용하시므로 이에 순응하여 자신과 백성과 나라의 안전을 도모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선택사행이 아니라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한 유대인들에게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워했고(렘 38:19), 신하들이 저항하므로 눈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렘 38:5, 24).

시드기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을 바벨론을 향한 배반으로 표현합니다. 세상에서는 용감하다고 칭송받았지 몰라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만용이었습니다.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른 불신앙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보다 이집트를 통해 반전을 모색하려고 했지만 애굽도 이익이 없는 전쟁에서 자신을 희생할 만큼 유다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렘 37:7). 유다를 진정으로 아끼는 친구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불신했습니다(25:1~7).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손에 의해 함락됩니다. 시드기야 제9년(BC 588) 제 10월 10일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토성을 쌓았습니다(1). 예루살렘은 2년 반 동안 포위 됩니다. 시드기야는 베발론에게 항복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도움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예루살렘을 도울 여력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드기야 제11년인 BC 586년 4월 9일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BC 586). 이날 성 안에는 양식이 모두 떨어졌고, 바벨론 군대는 성벽을 뚫어버렸습니다. 시드기야는 신하들과 도망을 치려 했지만 사로잡히고 맙니다. 자신이 자초한 일에 책임을 지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결국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힌 시드기야는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후 두 눈이 밝히고 눈 사슬로 결박당한 채 짐승처럼 바벨론을 끌려갔습니다. 유다는 길고 긴 흑암의 시기로, 노예의 시기로 들어갑니다. 존엄한 자유인의 축복을 외면했으니 비참한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그 옛날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것은 축복을 위한 걸음이었지만, 바벨론으로 들어간 것은 심판을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 하나님의 새 창조를 위한 모판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니 유배의 세월, 광야의 세월을 믿음으로 수납해야 합니다.